http://dx.doi.org/10.14774/JKIID.2014.23.5.033

올라퍼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에 나타난 공간 경험 및 디자인 방법

- 인간, 환경 사이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

Spatial Experience and Design Method in the Installation Projects of Olafur Eliasson

- Focusing on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Surrounding -

Author

이송학 Lee, Song-Hak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과정
김종진 Kim, Jong-Jin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부교수

Abstract

The Danish-Icelandic artist, Olafur Eliasson who was born in 1967 is known for installation projects employing materials such as colour, fog, mirror and light to re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surrounding. Since he started the early projects, Eliasson has been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 art, a viewer and space. He has used the medium from nature because he thought nature is very common subject to derive new idea of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surrounding. Eliasson revealed the idea of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surrounding by three characteristics of spatial design such as 'reinterpretation of placeness by juxtaposition of mediums and defamilarization', 'ambiguity and extensity of depth·distance of space by mediums' and 'change in spatiality by movement of viewers and time'. This paper focused on four case projects : The mediated motion in 2001, The weather project in 2003, The blind pavilion in 2003, Your rainbow panorama in 2011. It is aimed to discover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surrounding in the case projects under three characteristics. This study found that three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ly applied in the case projects in terms of spatial experience and design methods. Inside & outside locations, formal quality, visual-perceptual relationships in and around each case are crucial elements and tools.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surrounding of Eliasson and three characteristics are applicable to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Keywords

올라퍼 엘리아슨, 인간과 환경 관계성, 설치작품, 아이슬란드, 덴마크
Olafur Eliasson,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Surrounding, Installation Projects, Iceland, Denmark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도시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소비적이고 현혹적인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익숙한 주변 환경의 의미와 가치는 인간의 주된 관심에서 멀어져 간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고 있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관계를 재인식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올라퍼 엘리아슨이 있다. 그는 공간, 주변 환경, 예술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한다. 더불어 세 가지 요소들을 경험하는 인간과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1]은 주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해석된다. 엘리아슨은 사람이 직접 작품 속에서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상적인 공간과 환경에 대한 시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설치 작품을 이용하는 관람자(user)[2]가 감각을 통해 작품을 경험한 과정이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엘리아슨의 작품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을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인간과 환경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 그 사이에서 엘리아슨의 작품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찰해본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1) 설치 작품은 3차원 공간 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화 등의 평면 작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관람자가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 체험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2) 엘리아슨은 관람자를 단순히 viewer로 보지 않는다. 그는 감각을 이용하여 작품을 체험하는 관람자를 작품의 사용자 혹은 경험자라고 생각하여 user라고 한다.

올라퍼 엘리아슨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작가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공간적 관계성에 관한 연구로 한정하고 있다.

우선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언급한다. 2장에서는 엘리아슨의 작업 방식과 그의 작품의 경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에 나타나는 인간과 환경 관계성의 개념과 그의 전반적인 작품 개념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 중 공간적 특성을 분리시켜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인간과 환경 관계성이 나타나는 공간적 작품 중 네 가지를 선정하여 사례분석틀을 통해 분석을 한다. 작품 분석방법은 3장 2절에서 분석한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5장에서는 사례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 후,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이 관람자와 주변 환경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미지 중 엘리아슨의 작품에 한하여 년도가 기입되어 있으며, 사례분석에 사용된 작품은 관람자가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 체험하는 설치 작품들 중 공간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2. 올라퍼 엘리아슨 예술의 배경

2.1. 올라퍼 엘리아슨

올라퍼 엘리아슨은 196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아이슬란드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4살이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와 계부와 함께 살았다. 엘리아슨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이슬란드에 자주 방문했는데, 이것은 엘리아슨의 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엘리아슨은 1989년에서 1995년까지 덴마크의 왕립미술학교(Royal Danish Academy of Art)에서 수학했다. 1995년, 베를린에 그의 이름을 딴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하여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1998년, 스톡홀름에서 강의 흐름을 알기 위해 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우라닌(Uranin)이라는 환경에 무해한 형광염료 한 양동이를 도시를 지나는 강에 부어, 밝은 초록색으로 물들인 「Green river」(1998)로 주목받게 되었다. 엘리아슨은 이 작품을 통하여 익숙해져버린 일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하였다.

2003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덴마크 관 작가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런던 테이트 모던에 거대한 인공 태양을 설치한 「The weather project」(2003)가 20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엘리아슨은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건축적인 작품들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Serpentine Gallery Pavilion 2007」, 「Facade for Harpa Reykjavik Concert Hall and Conference Centre」(2011)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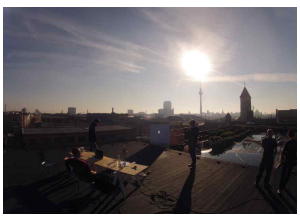
2.2. 열린 소통의 스튜디오 작업 방식

올라퍼 엘리아슨은 작품 활동을 1990년부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해온 생각과 탐구의 결과를 작품 속에 담으려고 노력해왔다. 1995년 작은 팀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베를린에 위치한 스튜디오(Studio Olafur Eliasson)에서 약 70명이 넘는 인원과 함께 작업을 한다. 스튜디오에서 엘리아슨과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은 공예가, 건축가, 예술가, 미술사가, 테크니션, 요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3]

엘리아슨의 스튜디오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생각을 발전시키며, 작업과정을 체계화한다. 또한, 2006년부터 매년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임을 가진다. 이 모임은 'Life is space'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실험을 한다.[4]

"엘리아슨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자(a detached observer)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나 또한 그의 스튜디오를 내가 생각하고 관찰해야하는 폐쇄된 독립체가 아니라, 스튜디오가 엘리아슨의 작업을 변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작가와 그의 팀 뿐 만이 아니라 나를 초대하는 일종의 효율적인 기계로써 기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5]

<그림 1> Life is space



<그림 2> Sun-tracking experiments

위의 언급처럼, 엘리아슨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작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 실험, 모형제작 등을 통해 생각을 구체화한다.[6]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엘리아슨은 다양한 시각과 방식으로 설치 작품을 작업하고 있다.

2.3. 올라퍼 엘리아슨 작품의 경향

(1) 자연을 작품 소재로 사용

3) http://www.olafureliasson.net/studio.html, About the Studio
4) 위의 사이트, Life is space, <그림 1> 참조
5) Ursprung, Philip, "From Observer to Participant : In Olafur Eliasson's Studio", Taschen, 2008, p.11
6)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모형제작을 한다, <그림 2> 참조

올라퍼 엘리아슨은 아이슬란드의 자연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랐다. 엘리아슨은 아이슬란드의 자연환경을 걷거나 운전할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이슬란드를 느끼고, 감각을 찾기 위해 스스로 감각한다고 말한다.[7] 그는 아이슬란드의 자연환경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자연환경과 현상,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엘리아슨은 자연현상을 자신의 작품의 연출 방법과 소재로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연현상 중 안개를 자신의 설치 작품에 자주 등장시킨다. 그 예로 「Yellow fog」(2008)를 들 수가 있겠다. 해진 뒤, 건물 외벽을 따라 노란빛을 띤 인공안개가 형성된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개를 통해, 엘리아슨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8]

<그림 3> Yellow Fog, 2008

<그림 4> 아이슬란드의 안개

"자연이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경험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재이다"[9]

엘리아슨의 언급처럼 그는 작품에 보편적인 소재로써 자연현상을 사용한다. 그의 경험이 그가 자연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수 도 있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태양, 날씨 등의 자연현상이 모든 이들에게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익숙함이 가진 편안함이 어떠한 장소에 위치하고, 어떤 연출 방법을 가지냐에 따라 그 느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질감과 낯섦을 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작품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끌어 내어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엘리아슨은 자연현상에 대한 감각과 경험을 작품을 체험하는 관람자에게 공감을 갖게 하고, 그들의 자연현상과 환경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빛과 시지각에 대한 탐구

1990년대 초반 작업에서부터 엘리아슨은 꾸준히 빛과 시지각에 대한 탐구를 시도했다.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사물들이 실제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들을 해오고 있다. 「Room for one colour」(1997)로부터 시작된 시지각에 대한 실험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 작품은 노란색으로만 이루어진 방으로, 이곳에 들어간 관람자는 그곳에 머물면서 시지각의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엘리아슨은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현상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관람자가 신체적 변화를 통해 체험하게 한다. 또한 그는 관람자로 하여금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일상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했다. 엘리아슨은 사물이 눈에 보임으로써 사물의 의미 전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물의 본질 자체는 그 속에서 있고, 눈에 보여 지는 표면적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흔하게 확정시키는 대부분의 사실들이 본질이 아닐 수 있음을 자신의 설치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Room for one colour, 1997

3.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에 나타난 인간과 환경 사이 관계성과 공간적 특성

3.1. 인간, 환경 사이의 관계성 개념

올라퍼 엘리아슨은 자신의 설치 작품을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의 매개(mediation)로 두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surrounding'[10]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경계가 펼쳐지고, 인간을 둘러싼 주변 공간을 의미한다. 엘리아슨의 작품이 설치되는 순간부터 주변 환경과의 간섭이 발생한다. 또한, 엘리아슨은 주변 환경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그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11]

엘리아슨은 작품에서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면 사람과 그 사이의 관계는 약해진다. 관계를 다시 새롭게 혹은 강하게 연결시켜줄 요소로 엘리아슨은 자신의 설치 작품을 제시한다. 그는 작품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상황이 작품의 하나의 과정과 결과임을 말하며 현상학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언급한다.

엘리아슨은 자신의 현상학적 관심이 모리스 메를로-

7) Eliasson, Olafur, 'Your Gravitational Now', Spatial Politics : Essays for Doreen Massey, Wiley-Blackwell, 2013, p.125

8) 엘리아슨의 연출방식은 그의 관심분야가 다양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는 연출 방식을 통해 낯섦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관람자와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한 장면에서 할 수 있게 한다.

9) http://www.pkmgallery.com/exhibitions/2012-04-19_olafur-eliasson

10) 엘리아슨은 surrounding에 관한 관심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surrounding과 관계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환경을 의미하는 environment와는 다르다.

11) 엘리아슨은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기술적으로 주변 환경은 대체되고 변화한다. 주어진 시간의 가치는 항상 우리의 삶을 안내하기 위한 선택한 것을 통해 방식과 관계를 결정한다. 만약 시간의 가치가 변한다면, 관계들 역시 변하게 된다."라고 한다, Beccaria, Marcella, Olafur Eliasson, Tate Publishing, 2013, p.39

퐁티(Maurice Merleau-Ponty)에서부터 시작하여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을 거쳐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까지 이어졌다고 한다.[12] 특히 그는 독일의 철학자인 후설의 영향을 받았다.

엘리아슨은 후설의 현상학적 이론 중에서도 현실과 개인적 경험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졌다. 현상학에 따르면 세계는 자아와 지향적 상관관계 속에서 주어져 있다. 즉, 세계는 인간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의식 또한 자립적이지 않다. 둘 사이에 있는 현상 자체가 바로 현실이자 세계인 것이다.[13]

엘리아슨은 현상학이라는 철학 개념을 자아와 자아를 둘러싼 환경이 관계하고, 주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현상학의 가장 큰 매력은 주체성의 개념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자각하는 주체이고 세계와 주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은 인간과 주변 환경이 가지는 관계 사이에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하게끔 만드는 매개의 역할을 하여 무관심해진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준다.

3.2 공간적 특성

올라퍼 엘리아슨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성을 다양한 연출방식을 통해 작품에 드러내고 있다. 연출방식에 따라 작품이 가지는 특성은 2장 3절의 작품 경향에 언급한 시지각과 자연현상이 매체(medium)[14]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성이 작품의 목적과 설치되는 장소성에 따라 구체화되면서 공간적 특성으로 드러난다.

(1) 낯설게 하기를 통한 장소성의 재해석

엘리아슨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고 그것을 '낯섦'을 이용하여 새롭게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엘리아슨은 자연에서 가져온 소재들을 가지고서 장소성의 낯설게 하기를 시도한다.

그의 「Your waste of time」(2006)을 살펴보면 흰색의 벽들로 둘러싸인 미술관 공간 안에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져온 가공하지 않은 빙하를 설치해, 공간의 이미지를 낯설게 만들어 기존의 미술관이 가진 장소성을 다르게 변형시켰다.

이와 같이 엘리아슨은 낯선 매체의 등장을 통한 장소성의 재해석 뿐 만 아니라, 작품 자체를 도심 혹은 자연

<그림 6> Your waste of time, 2006

등의 일상의 공간에 병치시켜 인간들에게 익숙하고 친밀한 장면들을 왜곡시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즉, 낯섦으로 관람자가 가진 기존의 인식과 기억을 깨뜨리고 또 다른 이미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한다. 이것은 일상에 던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남겨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엘리아슨의 작품이 가지는 목적 중의 하나이다.

(2) 공간 깊이·거리감의 모호와 확장

엘리아슨의 작품을 살펴보면 거울과 안개 등을 활용한 작품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거울과 안개 등의 매체는 공간에 적용시키면 그 공간의 깊이와 거리감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공간의 크기와 형태, 특성을 지각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림 7> Your blind movement, 2010

안개를 매체로 하여 사용한 작품으로 「Your blind movement」(2010)가 있다. 사각의 박스 안에 짙은 안개와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함께 연출하였다.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관람자는 시각의 사용을 방해받아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을 사용하여 움직인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오감 중에서 시각이 인간의 사고와 인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개를 통해 시각에 간섭하여 관람자가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을 이용하여 작품을 체험하고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림 8> Den trekantede Himmel, 2013

엘리아슨은 거울을 통해서도 공간의 깊이·거리감을 모호하게 만들고 확장하려고 한다. 거울의 반사성질을 이용해 무한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현실에 있어서 낯선 장면을 연출한다. 이 연출 방식에 의해 관람자들은 거울에 비친 익숙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지만, 그 순간 평소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나를 바라보게 된다.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을 통해 관람자는 자신이라는 익숙한 존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3) 관람자 움직임과 시간성에 따른 공간성 변화

12) Beccaria, Marcella, 앞의 책, 2013, p.39

13) 후설 이전의 철학자는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였지만, 후설은 현상 자체에서 존재의 본질을 찾는다. 세계와 존재와의 관계는 현상적 경험으로 통합되어 현실세계를 구축하는데 이는 이후 마르틴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14) 엘리아슨 작업에서의 매체는 재료·자연요소 등 구체적인 물질이기도 하며, 3차원 공간·분위기 등 작품의 공간적 특성을 의미한다.

엘리아슨은 자신의 설치 작품이 단순히 관람자가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닌, 관람자가 그 안에서 걷기도 하고 둘러보면서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여, 관람자가 작품 속에 머물기를 원한다.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 중에서는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가지는 공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있다. 관람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작품의 의미와 이미지는 달라지는 것이다.[15] 그 예로 「The movement meter for Lernacken」(2000)을 들 수 있다. 이 설치 작품의 이미지는 작품을 향해 다가가는 관람자의 속도와 시선의 차이로 인해 변한다. 이는 작품의 체험 과정과 작품이 가지는 종합적인 의미에 관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9> The movement meter for Lernacken, 2000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에서 시간성이란 「Your sun machine」(1997)처럼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작품을 보는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을 보게 되며 잔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16] 이와 같은 연출 방식은 엘리아슨이 생각하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Your sun machine, 1997

엘리아슨의 작품에서는 관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작품은 주변 환경과 인간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것이다. 바라보는 주체, 즉 관람자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가 요점이 된다.

4. 공간 경험 및 디자인 방법 분석

4.1. 사례 선정과 분석 방법

본 논문의 4장은 올라퍼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의 사례 분석 중심으로 한다. 엘리아슨의 인간과 환경 관계성을 바탕으로, 3장 2절에서 언급한 그의 설치 작품에서 보이는 세 가지 공간적 특성과 공간 경험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례 4작품을 선정하였다. 선정 근거는 관람자가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 체험하는 프로젝트 중 3장 2절의 공간적 특성이 조건[17]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작품은 The mediated motion, The weather project, The blind pavilion, Your rainbow panorama이다.

분석은 각 특성마다 구체화된 항목들을 두어 작품에서 나타난 인간과 주변 환경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공간 경험과 디자인 방법 중심으로 분석한다.

<표 1> 사례분석항목

공간적 특성	조건에 따른 공간적 특성의 변화		
낯설게 하기를 통한 장소성의 재해석	외부에서의 장소성	이미지	설명
	내부에서의 장소성	이미지	설명
공간 깊이·거리감의 모호성과 확장성	형태로 인한 깊이·거리감	이미지	설명
	작품 안에서의 깊이·거리감	이미지	설명
관람자(user) 움직임과 시간성에 따른 공간성의 변화	관람자의 동선과 움직임	이미지	설명
	주변 환경의 시간성	이미지	설명

4.2 사례 분석

(1) The mediated motion

「The mediated motion」은 2001년 3월에 오픈한 개인 전시 작품으로, 조경건축가인 군터 보크트(Gunther Vogt)와 함께 한 설치 작품이다. 예술가와 건축가의 생각의 연계가 드러난 프로젝트로, 엘리아슨은 이 프로젝트를 미술관의 4개 층별로 다른 작품들을 설치하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경험에 의한 여행(an experiential journey)'으로 상상했다.[18]

4개의 층이 각각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관람자는 매 층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에서 온 매체들을 미술관에 적용하여 이질적이고 낯선 느낌을 가지게 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기존의 미술관이 가진 의미와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동선은 관람자에게 매개의 역할을 하고, 관람자는 동선 위에서 만난 매체들을 통해 관람자 주체와 미술관과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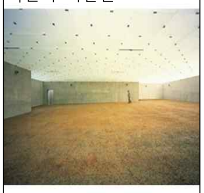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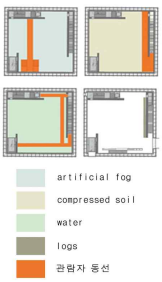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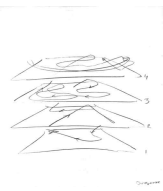
15)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작품이 관람자를 직접 목표로 하고 그들의 답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개별적인 관찰자와 대중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람자로 하여금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지각하고 의미를 도출하게 한다", Ursprung, Philip, 앞의 책, 2008, p.16

16) 최지아, 올라퍼 엘리아슨 작품에서 비물질성과 관람자의 체험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0, p.57

17)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직접적인 경험에 따라 작품의 성격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게 만드는 관람자(user), 주변 환경(surrounding), 시간성(time), 공간성(spatiality) 등을 말한다.

18) Beccaria, Marcella, 앞의 책, 2013, p.59

<표 2> The mediated motion에 나타난 공간 경험과 디자인 방법

공간적 특성	조건에 따른 공간적 특성의 변화		
낯설게 하기를 통한 장소성의 재해석	외부에서의 장소성	외부에서 바라본 미술관	미술관 내부에 설치된 프로젝트이기에 외부에서 미술관을 보았을 때는 기존의 장소성으로 인식한다. 내부로 들어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내부의 새로운 낯섦을 통해 미술관의 장소성을 재해석한다.
	내부에서의 장소성	기존의 미술관  The mediated motion 3F	콘크리트벽과 불투명한 유리천장이 가지는 미니멀한 공간에 물을 깔고 그 위에 길을 만들고, 응축시킨 토양을 미술관 한 층 바닥에 설치하는 등의 연출을 통해 미술관이 가진 이미지를 탈피시켰다. 엘리아슨은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자연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시각과 촉각 그리고 후각으로 체험하게 하였다.
공간 깊이·거리감의 모호성과 확장성	형태로 인한 깊이·거리감		미술관의 동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층마다 다른 작품을 설치하였다. 작품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계하여 관람자가 동선을 따라 이동하게 되면 비슷한 크기의 공간을 다른 거리감이 들게 하였다.
	작품 안에서의 깊이·거리감	The mediated motion 4F	4층에 위치한 전시실에는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공간 전체는 인공 안개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작품에서의 안개의 역할은 공간의 깊이, 형태, 거리감을 흐릿하게 만듦으로써 공간의 성격을 중성적으로 모호하게 한다.
관람자(user) 움직임과 시간성에 따른 공간성의 변화	관람자의 동선과 움직임	 엘리아슨의 동선 스케치	총 4개의 층을 통해 관람자는 인공적으로 만든 자연을 오감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각 전시실을 통과하는 관람자의 주체에 따라 그 공간의 모습은 다르게 인식되어진다. 또한 각 층마다 가지는 동선을 다르게 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공간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주변 환경의 시간성		프로젝트마다 사용된 자연 요소들이 주변 환경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을 상쇄하여 공간에 고여있게 만든다. 관람자는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 공간을 체험하고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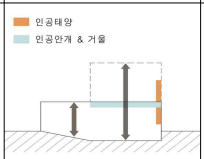
(2) The weather project

런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터빈 홀에 거대한 인공 태양을 설치한 작품으로, 현실의 자연에 존재하는 태양을 인공적으로 설치하고, 그것과 관람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실험하는 프로젝트였다.

35m 높이의 터빈 홀 천장을 거울로 덮고, 터빈 홀의 한 쪽 벽면에 반투명한 반원형의 플라스틱을 설치하고 그 뒤에 200개의 노란 전구를 부착하였다. 그리고 터빈 홀 위쪽에 인공 안개를 채워 연출하였다. 천장의 거울들이 반원형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켜 원형의 태양을 만들었고, 공간을 수직으로 확장시켜 거리감을 무너뜨렸다.

미술관 안에 태양이라는 자연 소재를 가져옴으로써 미술관이 가진 장소에 대해 낯설게 하고, 태양이 주는 일상적인 모습과 현상을 관람자로 하여금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태양을 그리워하는 런던 시민들을 거울 아래에 놓인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게 만들면서 또 다른 관계성을 제시하였다.

<표 3> The weather project에 나타난 공간 경험과 디자인 방법

공간적 특성	조건에 따른 공간적 특성의 변화		
낯설게 하기를 통한 장소성의 재해석	외부에서의 장소성		미술관 외부는 프로젝트의 영향을 벗어나있기 때문에 기존의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람자가 내부로 들어가 프로젝트를 보는 순간, 외부와 내부의 낯섦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미술관의 장소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내부에서의 장소성	기존의 미술관 The weather project	태양이라는 자연 환경을 미술관에 끌어 들여 기존의 미술관이 가진 전시공간의 성격을 바꾼다. 거대한 터빈 홀은 평소에는 비워져있지만 석양빛을 담은 인공 태양이 설치되는 순간, 공간이 가진 일상적인 모습은 붉게 물든 환상적인 장소로 재탄생되어진다.
공간 깊이·거리감의 모호성과 확장성	형태로 인한 깊이·거리감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매체 중 거울은 천장에 부착함으로써 거울이 가진 반사 성격을 이용하였다. 거울은 공간을 확장시키고 시선을 무한한 공간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작품 안에서의 깊이·거리감		인공 안개는 경계와 시선에 있어 모호함을 줌으로써 공간의 깊이를 알 수 없게 만들어 공간의 무한성을 드러내게 한다. 인공 태양이 가지는 색은 터빈 홀 전체를 둘러싼다. 이는 기존의 터빈 홀이 가진 색을 잃게 만들면서 공간의 성격을 변하게 한다.
관람자(user) 움직임과 시간성에 따른 공간성의 변화	관람자의 동선과 움직임	 	관람자들은 천장에 붙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와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익숙하게 느껴졌던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게 된다. 관람자들마다 다른 행동들을 하는 현상은 엘리아슨이 생각하는 일상에 또 다른 시선을 주게 하는 역할로써의 설치 작품을 볼 수 있다.

	주변 환경의 시간성		미술관 안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에 주변 환경의 시간성은 개입하지 않는다. 인공 태양 아래서 관람자들은 시간을 소비한다. 항상 떠있는 태양은 관람자들을 외부의 시간과 무관하게 만든다.

(3) The blind pavi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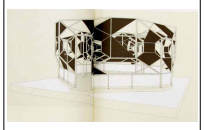
엘리아슨이 2003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의 덴마크 관 작가로 선정되어 진행한 파빌리온 프로젝트이다.

다른 형태의 흑경과 유리로 이루어진 이 파빌리온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었다. 베니스 비엔날레 포함 총 4번의 설치(Beijing 2012, Berlin 2010, Iceland 2005, 50th Venice Biennale 2003)를 거쳐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엘리아슨이 관람자가 가진 주변 환경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관람자는 파빌리온으로 진입하고, 내부에 들어간 관람자는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주변 환경의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러한 진입 과정 전체가 프로젝트이다. 매체의 성질과 배치에 따라 주변 환경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투영시켜 보여준다.

관람자는 파빌리온이 주는 다양한 각도의 시선의 부딪침과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지한다.

<표 4> The blind pavilion에 나타난 공간 경험과 디자인 방법

공간적 특성	조건에 따른 공간적 특성의 변화		
낯설게 하기를 통한 장소성의 재해석	외부에서의 장소성		흑경과 유리로 만들어진 파빌리온은 주변 환경을 비추거나 통과시킴으로써 주변 환경이 가진 익숙한 이미지를 낯설게 변형시켜 인식시킨다.
	내부에서의 장소성		다양한 크기를 가진 흑경과 유리들이 주변 환경과 시선을 파편화시켜 파빌리온 내부에서 관람자가 보는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킨다.
공간 깊이·거리감의 모호성과 확장성	형태로 인한 깊이·거리감		매체들은 각각 다른 형태로 파편화되어 배치된다. 이 형태를 통해 바라본 주변 환경의 이미지는 공간의 경계를 흔들어 놓아, 기존의 일상적 공간이 가진 깊이와 거리감을 모호하게 만든다.
	작품 안에서의 깊이·거리감		관람자는 파빌리온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움직임과 다양한 각도를 가진 매체와 동선을 통해 공간의 깊이와 거리를 왜곡하여 인식하게 된다.
관람자(user) 움직임과 시간성에 따른 공간성의 변화	관람자의 동선과 움직임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관람자는 시선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보게 된다. 파빌리온 외부로부터 시작된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투영된 주변 환경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공간이 가진 새로운 성격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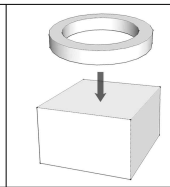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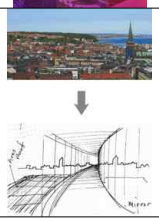
	주변 환경의 시간성	 겨울의 파빌리온 여름의 파빌리온	이 작품은 총 4군데에서 설치되었는데, 그 중 세 장소의 공통점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지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다. 주변 환경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파빌리온은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공간의 성격을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4) Your rainbow panor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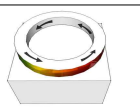
「Your rainbow panorama」는 덴마크 오르후스에 위치한 아로스 쿤스트뮤지엄(ARoS Kunstmuseum)의 옥상에 설치된 작품이다.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미술관은 도시 풍경의 하나로,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큐브 형태를 가지고 있다. 큐브 위에 얹힌 150m의 긴 원형의 동선을 가진 이 파빌리온은 무지개 스펙트럼의 필터를 통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엘리아슨은 이 프로젝트가 관람자, 박물관 그리고 도시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의 매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19]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 지는 도시와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관계와 매개자가 위치한 미술관이 가진 역할과 새롭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생각을 관람자와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

<표 5> Your rainbow panorama에 나타난 공간 경험과 디자인 방법

공간적 특성	조건에 따른 공간적 특성의 변화		
낯설게 하기를 통한 장소성의 재해석	외부에서의 장소성		사각형의 미술관 건물 위에 원형의 파빌리온을 설치하였다. 단순한 형태의 기존 장소에 새로운 형태인 원형을 추가함으로써 미술관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재밌는 인상을 주고자 하였다.
	내부에서의 장소성		색의 스펙트럼의 필터를 배치하여 기존의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아닌 필터를 통해 새롭게 바라본 낯선 도시의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평범한 도시의 모습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공간 깊이·거리감의 모호성과 확장성	형태로 인한 깊이·거리감		수평의 이미지의 도시의 풍경이 공간 안에서 외부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곡선이 주는 시선의 확장성을 통해 다르게 보여 진다. Your rainbow panorama를 통해 확트인 수평의 긴 도시의 풍경이 왜곡되어 공간의 거리감을 잃게 만들어 도시의 풍경을 낯설게 한다.
	작품 안에서의 깊이·거리감		색의 스펙트럼을 유리에 적용시킴으로써 시각적으로 공간을 차지하여 기존의 공간이 가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효과로 공간의 깊이와 거리감은 낯설게 느껴지게 된다.

19) Beccaria, Marcella, 앞의 책, 2013, p.102

관람자(user) 움직임과 시간성에 따른 공간성의 변화	관람자의 동선과 움직임		관람자는 파빌리온의 정해진 원형의 동선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관람자에 따라 보는 도시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진다. 관람자의 속도, 시선의 위치, 머무는 시간 등에 따라 파빌리온은 관람자에게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주변 환경의 시간성		외부에 위치한 작품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 특히 시간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작품으로, 하루의 언제에 파빌리온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도시의 모습과 성격은 다양하게 변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아이슬란드-덴마크 설치 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에 나타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성을 통한 공간 경험과 디자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간적 특성은 낯설게 하기를 통한 장소성의 재해석, 공간 깊이·거리감의 모호성과 확장성, 관람자 움직임과 시간성에 따른 공간성의 변화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은 관람자(user)와 주변 환경(surrounding) 사이에서 기존의 관계를 파편화시키고 재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엘리아슨의 작품은 하나의 상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 관람자의 주체성은 변하게 되어 일상의 주변 환경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든다. 관람자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부여한다.

둘째,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은 관람자에게 이질감과 낯섦을 느끼게 하여 장소성과 관람자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관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의 작품에서는 관람자의 움직임과 기억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달라진다. 설치 작품만이 아니라 관람자가 하나의 매체가 되고 매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에서의 체험은 시지각적 간섭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감각에 작용한다. 감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엘리아슨은 디자인 방법에 있어 시각을 배제하거나 혼란시키는 것을 선택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있어 낯선 의문을 던지고, 관람자의 주체성은 새롭게 정의되고, 이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성의 또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은 작품의 3차원 공간적 특징에 시간성과 관람자라는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그의 작품이 주변 환경의 새로운 공간 경험을 통해 인간이 가지는 공간에 대한 원초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자극하는 측면을 가진다. 이를 통해 관람자가 다시 일상공간으로 회귀하면 이전까지 동일했던 혹은 무관심했던 일상공간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엘리아슨의 설치 작품들은 미술, 건축, 환경, 조경 분야와의 협업을 거쳐 탄생한 작품들이다. 즉, 다양한 학제간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엘리아슨의 인간과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철학과 작업이 예술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건축,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론에서 분석된 세 가지 공간적 특성은 관련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에 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과정에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Beccaria, Marcella, Olafur Eliasson, Tate Publishing, 2013
2. Birnbaum, Daniel, Grzynstejn, Madeleine, Olafur Eliasson, Phaidon, 2002
3. Bollnow, Otto Friedrich,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4. Eggel, Caroline and Engberg-Pedersen, Anna, Serpentine Gallery Pavilion 2007: Olafur Eliasson and Kjetil Thorsen, Serpentine Gallery Lars Muller Publishers, 2007
5. Eliasson, Olafur, “Your Engagement has Consequences” In Experiment Marathon: Serpentine Gallery. Edited by Ridgway, Emma. Reykjavik: Reykjavik Art Museum, 2009
6. Featherstone, David and Painter, Joe, eds., Spatial Politics : Essays for Doreen Massey, Wiley-Blackwell, 2013
7. Ursprung, Philip, Studio Olafur Eliasson: An Encyclopedia, Taschen, 2008
8. 최지아,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에서 비물질성과 관람자의 체험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0
9. 이지은, 올라푸 엘리아슨의 작품을 통해 보는 미술의 집단적 체험과 공동체적 소통의 가능성,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31집, 2009
10. http://www.olafureliasson.net

[논문접수 : 2014. 07. 31]
[1차 심사 : 2014. 08. 30]
[2차 심사 : 2014. 09. 05]
[3차 심사 : 2014. 09. 11]
[게재확정 : 2014. 10. 10]